

「95810計劃」을 全社적으로 推進

韓國電力公社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의 전력사업에 있어 여러 가지 시련과 보람을 함께 던져준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력수요는 사상 최초로 2,000만kW를 돌파하여 전력수급의 위기상황을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력수급 안정의 최대 고비였던 작년 여름은 긴급 단기전력수급대책인 「92810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어려움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작년 84.5%라는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여 국내 총 발전량의 약 43%를 차지하였고, 불시정지도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장기전원개발계획에 의거 울진원전 3, 4호기와 월성 3, 4호기 건설이 착공됨으로써 총 7기(610만kW)의 원전 건설이 진행된 의미있는 한 해였다.

금년은 「92810계획」의 성공적 마무리에 이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라는 목표를 한 차원 높여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한국전력을 2000년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회사로 발전시키는 초석을 다지기 위한 「95810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이다. 「95810계획」은 良質의 전기를 싸고 안정되게 공급할 책임을 지닌 한전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경영혁신계획이다.

「95810계획」의 원년인 1993년 게유년 새해를 맞아 우리 회사 원자력분야 주요 추진업무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발전설비 운영의 혁신이다. 올해도 전력사업의 최대 현안과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다. 이를 위하여 원전의 「1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비품질 향상과 설비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예방정비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행

에 따른 문제점의 철저한 분석과 Feedback은 물론 정비전문회사의 기술개발 유도과 재작 및 설계회사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예방진단기술 개발과 노후 및 취약설비 개선을 통해 설비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불시정지 예방을 위한 또 하나의 대책으로 인적실수의 근절을 들 수 있다. INPO의 인적행위개선제도(HPES)를 근간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및 전문교육장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해 운영요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고자 한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 원전에 대하여는 인허가의 적기 취득과 자체심사분석 강화로 공기지연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단위사업별 주공정의 집중관리와 철저한 시운전관리를 통해 공급능력의 적기 확충과 발전소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영광 3, 4호기는 종합공정률 89.3%를 목표로 하고 상온수압시험 등 본격적인 시운전업무에 착수하게 되며, 울진 3, 4호기는 30%, 월성 2, 3, 4호기는 19.2%의 공정률을 목표로 건설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번째는 설비효율의 혁신으로서 1989년 이후 계속해서 75% 이상 높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원전의 이용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금년도 이용률 목표는 81%로서 이를 위해 15~18개월의 장주기운전을 95만kW급 원전에 계속 적용하는 한편, 앞서 언급한 정비품질 향상을 통해 호기당 불시정지 횟수를 연 1건 이하로 유지하고

정비시간 단축에도 모든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세번째는 관리의 혁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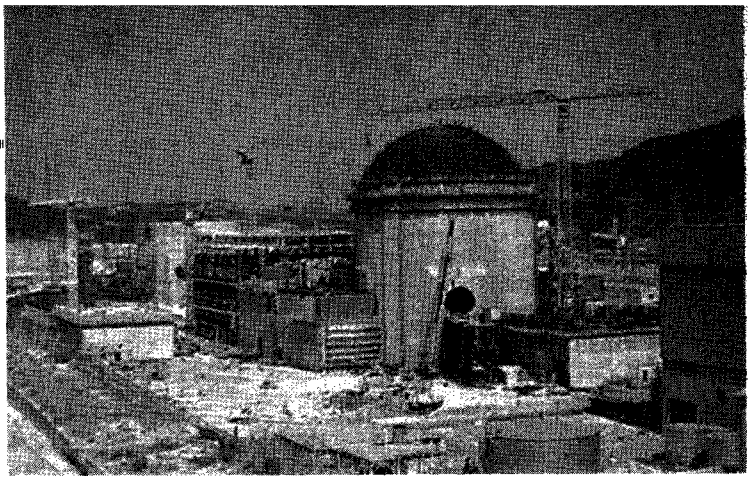
원전사업 주변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원자력기술 자립, 신형원자로 개발방안 등 원자력이용개발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원자력안전관리체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안전성 확인 및 검토체계 개선, 원전 안전성평가제도 도입 운영, 원전사고·고장 보고 및 등 급분류제도 등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 10위권의 원전보유국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 정립을 위하여 국제협력업무의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정보의 단순교환단계에서 탈피하여 본격적인 기술협력기반을 조성하며 협력대상도 러시아 등 동구권과 中國을 비롯하여 OECD/NEA 등과도 확대해 나가며 WANO, INPO, IAEA에서의 우리의 역할증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적비용 집행체계의 정립을 통해 원전의 경제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원전에 대한 공사비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며 발전원가 저감화를 위한 각종 대책의 수립과 이행노력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발전소 운영 및 건설기술의 혁신이다.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원전운영자립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효율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힘쓰는 한편 해외 우수 원전과의 정기 경험



〈그림 1〉 현재 시공중인 영광 3, 4호기

교환체계 구축을 통해 원전설비의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원전건설분야에 있어서 기술자립도는 올해에 종합목표 93%로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발전소 건설 기준공정 및 공정관리지침 제정, 표준건설관리체계 제도화 등 건설관리 표준화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원전산업 기술기준 개발을 통해 기술수준의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또한 신형원자로, 수명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등 원자력관련 연구개발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국제연구개발계획과의 효율적 연계 추진을 도모하고 전력관련사들의 원자력 연구기능 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원자력기술종합체계도의 작성 및 원자력기술의 현주소와 개발전망 분석 등 기술수준평가체계를 정립하고 장기적으로 도입기술의 소화 흡수단계에서 자체 개발능력 확보단계로 전환하여 완전 기술자립을 이룩할 수 있도록 기술자립목표의 재설정 등 원자력종합기술자립계획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의식개혁분야로서 원전사업의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사고가 긍정적, 진취적, 적극적,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여 회사 전체의 시너지(Synergy)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원자력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국제 원자력기구의 안전문화평가지침을 활용하여 자체평가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안전관련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전입지 확보를 위한 원자력홍보활동을 지역밀착형으로 적극 전환하여 추진하며, 123 자동응답시스템 및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정보공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홍보활동의 꾸준한 추진과 개선으로 원자력에 대한 이해기반을 확산시키는데 더욱 정진할 것이며 작년에 발족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홍보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한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95810계획」의 원년을 맞이하는 우리 회사로서는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집중시킴과 아울러 목표달성의 실천의지를 갖고 새 유년 새해를 맞이하고자 한다.■